



## 탄금주적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고대 중국의 후한(後漢) 말기에 환관의 수탈이 극심하고 폭정이 계속되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지방에서 영웅호걸들이 일어나 패권 싸움으로 결국 제국이 분열되고 멸망해(AD 220년) 이른바 위(魏), 촉(蜀), 오(吳)의 삼국시대로 이어졌다. 원(元) 왕조가 명(明)으로 교체되는 14세기 말에 소설가 겸 극작가로 활동한 나관중(羅貫中)은 삼국시대 패권 싸움의 전쟁사를 소설체로 기록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남겼다. 이 책은 흥미진진하게 쓰인 역사소설로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어 “낙양의 지가를 올린”(洛陽紙價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삼국시대에 일어난 전투 중에서 특별히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탄금주적(彈琴走賊)의 이야기이다. 이 싸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촉의 승상 제갈량은 장군 마속(馬謖)의 경솔한 작전으로 군사 요충지 가정(街丁)을 위군(魏軍)에게 빼앗기고 서둘러 철수 준비를 했다. 공명

은 장수들에게 철수 명령을 지시한 다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성(西城)으로 가서 군수물자 운반을 독려했다. 이때 사마의(司馬懿)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폭풍우처럼 세차게 쳐들어오는 급보가 잇따랐다. 공명의 곁에는 무장은 없었고 문관이 영솔하는 5천 명의 병력이 있었으나 그나마 절반은 군량 수송으로 성 밖으로 나갔고 성안에는 겨우 3천 미만의 병력이 있었다. 모두 대경실색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공명이 성루에 올라 바라보니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적군이 두 갈래로 침입해오는 모습이 보였다. 공명은 급히 명령을 내렸다. 성에 꽂은 기를 모두 치우고 4 대문을 열어 놓고 문마다 20명의 병사를 시켜 길을 쓸게 했다. 공명은 장수들에게 따로 비장의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는 위군이 가까이 오더라도 태연하게 길만 쓸도록 했다. 분부를 마친 공명은 윤건(綸巾)을 쓰고 성루의 난간에 의지해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다. 위군의 선봉이



성 가까이 당도해보니 모든 성문이 열려있고 성 위에는 공명이 신선의 옷을 입고 한가하게 거문고를 탄주(彈奏)하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사마의가 바라보니 과연 공명은 성루에 앉아서 거문고를 타는데 얼굴은 지극히 평화롭게 보이고 거문고 소리는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다. 공명의 귀신같은 작전에 여러 차례 혼쫓이 난 사마의는 더럭 의심이 생겨 곧바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사마의는 공명의 지략이 뛰어나고 조심성이 많아 위험한 작전을 퍼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감쪽같이 속은 것이다. 탄금주적은 물론 진수(陳壽)가 저술한 정사(正史) 삼국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소설인데, 거문고를 쳐서 적을 도주시킨다는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제갈공명의 뛰어난 지략이 숨어있으며 그 지략의 원천은 공명의 인품이 성실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의 언행을 믿었기 때문이다.

유교의 경전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으로 이른바 사서(四書)를 말한다. 이 경전을 보면 유교가 종교라기보다는 인(仁)과 성(誠)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 정치학이다. 유교 사상은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의 대표적 사상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양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 중용(中庸)은 공자의 사상을 그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저작한 것으로 동양 철학의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다. 극단적인 혹은 충돌하는 이념 사이에서의 결정을 중간의 도(道)를 택한다는 유

교의 교리로서 중용은 신중한 실행이나 실천을 권한다. 그 중용의 첫 부분에서 불성무물(不誠無物)이란 사자성어를 볼 수 있다. “성실은 모든 사물의 근본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다. 『논어』에서도 주충신(主忠信)이라 하여 성실과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인간 사회에서 성실을 모든 덕목의 으뜸으로 여긴다.

12세기 송(宋)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그의 저서인 『근사록(近思錄)』에서 북송의 정치가 겸 역사학자인 사마광(司馬光)이 평소애 말한 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마광은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술한 인물인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다만 평소애 남에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 언행은 하나도 없다”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떳떳한 말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유감일 뿐이다. 사마광의 수제자인 유안세(劉安世)가 동료들에게 “나는 지난 5년 동안 스승으로부터 한마디를 터득했으니 이는 곧 성(誠)이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 스승에게 그런 제자라고 했던가?

16세기는 조선왕조의 지성사에서 볼 때 사람의 성장기로 규정할 수 있다. 퇴계 이황은 조선시대 최고의 사상가, 교육자로 성리학을 체계화했고 도산서당(후에 도산서원으로 개명하고 서당도 확장)을 세워 제자를 양성한 석학이다. 그의 철학사상도 구인성성론(求人成聖論)에서 성

(誠)을 최고의 덕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양의 사상체계가 인(仁)과 성(誠)을 발전시킨 고전 유학에서 발원했다면, 서양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형이상학과 자연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형이상학에 몰입했으나 말년에는 형이상학의 공허함을 깨닫고 실천적 학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는 인간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행복에 있다는 것과 이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인 덕(德)에 따른 행동임을 논증했다. 인간만이 합리적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숙고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관심사는 인간의 행복에 있으며 이는 실천철학으로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반영되어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신체 단련에 힘썼는데, 이는 건전한 윤리 생활의 기초로서 선(善)과 덕(德)을 함양하는 것이 행복의 요체를 말하는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 보여준 도덕적 세계관의 완결로 인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로 세계 최초로 체계화된 윤리서이다. 그의 말년의 원숙한 사색을 나타낸 책인데 아들 니코마코스가 편집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 부르게 되었다. **KMIF**